

【논문】

이중 평가 체계로서의 프린츠의 감정이론

—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김진영

【주제분류】 심리철학, 과학철학

【주요어】 감정, 프린츠, 체현된 평가, 유인가 표지, 동기화

【요약문】 지난 한 세기동안 감정의 본성에 관하여 체임스식의 신체이론(somatic theory)과 인지주의자들의 평가이론(appraisal theory)이 서로 논쟁해왔다. 그러나 프린츠는 최근 이 두 입장을 화해시키고 감정의 일반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서로 경쟁해왔던 신체이론과 평가이론은 어떤 방식으로 체현된 평가(embodied appraisal)로 통합될 수 있는가, 둘째, 유인가 표지(valence marker)는 체현된 평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은 어떻게 행동을 발생시키는가. 이 물음들을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체현된 평가의 이론적 토대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그동안 그의 감정이론을 논의해왔던 논자들이 도외시 한 유인가 표지가 체현된 평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임으로써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이중 평가 체계로 해석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행동이 나타나는지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해명되지 못했다는 최근의 한 문제제기가 타당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후,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통해 충분히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I. 도입

본 논문에서 나는 프린츠(J. Prinz)의 감정이론(theory of emotion)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 번째 물음은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논쟁을 종식시키고 두 입장의 화해를 시도하면서 프린츠가 제안한 체현된 평가(embodied appraisal)란 무엇이고 이것의 이론적 토대는 과연 타당한가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 나는 실재적 내용(real content)과 명목적 내용(nominal content) 구분에 주목한 다음, 이 구분에 대해 예상되는 한 가지 비판에 대해 프린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 가능할지 보여줄 예정이다. 두 번째 물음은 감정에 대한 프린츠의 저서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후반부에서 논의된 유인가 표지(valence marker)의 의미가 무엇이고 감정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체현된 평가와는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유인가 표지 개념은 프린츠의 감정이론이 논의될 때 줄곧 도외시되어왔다. 그러나 프린츠가 자신의 감정이론을 ‘값어치가 매겨진 체현된 평가’(valent embodied appraisal)라고 명시한 점을 감안할 때, 유인가 표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그의 감정이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나는 유인가 표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것이 체현된 평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마지막 물음은 프린츠의 감정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감정적인 행동과 연결되는가이다. 이 물음과 관련하여 나는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감정이 어떻게 행동과 관련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못했다는 최근의 비판에 주목한 다음, 그 비판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II. 프린츠의 감정이론 I: 체현된 평가

1. 제임스의 신체적 감정이론

프린츠는 제임스(W. James)의 신체적 감정이론(somatic theory of emotion)을 자기 감정이론의 토대로 삼았다고 고백했다.¹⁾ 따라서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임스의 견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제임스는 신체와 감정이 어떻게 서로 관련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감정 변화가 나타날 때 신체의 변화도 함께 느낀다. 예컨대, 슬픈 감정을 느낄 때 눈물이 흐르고, 화가 났을 때는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리고 공포심을 느낄 때는 손바닥에 땀이 나고 근육이 경직되며 동공이 확대된다. 이처럼 신체변화와 감정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감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체변화가 동반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신체변화의 원인이며,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도 함께 따라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제임스는 신체변화와 감정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신체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그는 신체변화가 감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신체 내부의 반응들 때문이며, 여러 가지 감정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내부 반응이나 그로 인해 지각되는 감정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각하면 신체변화가 뒤따르고, 그 신체변화에 대한 느낌이 바로 감정이다.”²⁾ 우리는 울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누군가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화가 나며, 몸을 떨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지, 슬프거나 화가 나고 두렵기 때문에 각각 울고 저항하고 몸을 떠는 것이 아니다.³⁾

이와 같은 제임스의 신체적 감정이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

1) Prinz (2004a), p. 58.

2) James (1890), p. 449.

3) James (1890), pp. 449 ~ 450.

다. 첫째, 감정은 신체반응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신체반응은 감정의 원인이면서 인과적으로 선행한다. 둘째, 감정은 신체변화의 지각(perception)이다. 즉, 외부의 감정 유발 자극에 의해서 신체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면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신체변화 그 자체가 감정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특정 신체 부위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비로소 감정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제임스의 감정이론은 신체변화 지각이론(perception theory of bodily changes)이라고 불릴 만하다.

감정에 대해서 프린츠가 계승한 제임스의 입장이 바로 이 신체변화 지각이론이다. 어떤 사람이 산 속에서 뱀을 마주쳤을 때,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온 몸이 경직되는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이런 신체변화들을 지각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공포라는 감정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런 신체변화에 대한 지각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뱀을 직면한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공포에 질렸을 것이다. 우리는 공포심을 느끼기 이전에 나타나는 신체변화를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신체변화에 대한 지각 역시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뱀을 목격하고서 어떤 신체변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이 야기되었는지 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신체변화를 지각하는 순간에 대한 의식적인 개입은 불가능하다. 뱀을 목격하고 신체변화가 나타나며 그 변화를 지각하는 일련의 과정은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마침내 심장의 빨라진 고동 소리도 느껴지고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신체변화를 야기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우리는 감정이 발생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변화가 감정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오해했던 것이다. 의식적으로 파악된 신체변화는 감정에 의해서 새롭게 유발된 결과가 아니다. 빨라진 심장박동과 식은 땀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몸에서 나타난 변화이며, 그 변화에 대한 지각에 의해서 이미 공포심이 생겨났다. 정리하면, 신체변화는 감

정에 인과적으로 선행하며 감정이 발생하는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2. 체현된 평가로서의 감정

프린츠는 제임스의 감정이론을 발전시켜서 체현된 평가로서의 감정이론을 주장했다.⁴⁾ 그렇다면 체현된 평가로서의 감정은 어떻게 제임스의 이론과 연결되는가? 그리고 프린츠의 감정이론은 제임스의 이론과 어떤 점에 있어서 차별화되는가? 이 두 가지 물음 중에서 나는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먼저 답한 뒤에 다시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두 번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자들의 평가이론을 프린츠가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은 일반적으로 우리와 관련 맺고 있는 외부 세계의 특정 대상들에 의해서 유발(elicit)된다.⁵⁾ 뱀을 만났을 때 나타난 공포는 우리가 뱀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상황 때문에 비롯되었다. 또, 큰 수컷 곰을 산 속에서 혼자 만났을 때도 역시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것인데, 이 때 역시 곰과 내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곰이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상황에 내가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뱀이나 수컷 곰은 공포라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대상이며, 이 대상들이 나에게 위협스러운 것들로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한다. 이런 점에서 공포는 내가 겁내는 그 대상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위험이라는 속성에 의해서 결국 유발된 것이다.

공포 외에 슬픔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시험에서의 낙방, 연인과의 이별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슬퍼한다. 각각의 상황들은 세계 속에서 내가 관계 맺거나 기대했던 무언가가 상실(loss)되었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포함한다. 즉, 슬픔이라는 감정은 상실과 관련된 모든 개별 사건들에 의해서 유발되며, 결국 슬픔은 궁극적으로 무언가가 상실되었을 때 발생한다. 감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세계 속의 대상들은 구체적

4) Prinz (2004a, 2004b).

5) Prinz (2004b), p. 60.

대상(particular object)이며, 그 구체적 대상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이다. 공포에 대한 뱀과 수컷 곰, 슬픔에 대한 가족의 죽음이나 연인과의 이별들은 모두 구체적인 대상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들의 공통적인 속성들, 즉 공포에 대한 위협, 슬픔에 대한 상실은 바로 형식적인 대상이다.⁶⁾

감정을 일으키는 형식적인 대상들은 우리와 세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속성들이다. 곰에 대한 위협, 슬픔에 대한 상실 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할 때 분노(anger)를 느낀다.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pride)을 느낀다. 이처럼 위협, 상실, 모욕, 그리고 가치 있는 성과들은 각각의 개인들 자신의 안녕(well-being)과 관련하여 세계 속의 외부 상황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관계들을 라자루스(R. Lazarus)는 핵심관련주제(core relational themes)라고 불렀다.⁷⁾ 핵심관련주제들은 감정을 유발하는 공통적인 속성들이며, 감정은 이 핵심관련주제들을 표상한다. 그리고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들을 표상하는 것이 곧 평가이다. 즉, 평가로서의 감정은 유기체 자신의 안녕을 유지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린츠의 감정이론이 제임스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평가라는 용어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프린츠는 제임스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론에 반영하였는가? 이 물음은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것으로서의 평가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라자루스는 개인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인지적 판단(cognitive judgement)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목표의 적절성과 목표와의 일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자기 자신과 얼마나 연관 깊은지, 비난받은 것인지 아닌지, 실행으로 옮길만한지, 그리고 실행에 옮겼을 때 목표와는 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 다음에 비로소 감정이 나타난다. 예컨대, 특정 목표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그 목표와 불일치한 무엇인가가 발생했을 때 분노가 생길만한 기초적인 토대

6) Prinz (2004b), p. 62.

7) Lazarus (1991), p. 122.

가 갖춰진다. 여기에 자부심, 사회적 평판을 훼손당하는 비난을 받았고 그 대상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 과연 종전의 목표와 얼마나 일치할지 판단한 이후에 드디어 분노가 발생한다. 라자루스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대상을 지각하고 나서 위와 같은 인지적 판단들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감정적 상태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인지적 판단은 개념적(conceptual)이며 신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탈체현(disembodied)된 과정들이다.

그런데 라자루스와 달리, 프린츠는 자기 자신의 안녕과 관련하여 환경과의 관계를 표상하는 평가가 인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어떻게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가에 대해서 프린츠는 라자루스의 견해를 거부하고 제임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얼핏 보면, 평가라는 것이 매우 인지적인 과정의 산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프린츠는 평가가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 것일까? 프린츠는 드레츠키의 표상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이론을 뒷받침한다. 드레츠키(F. Dretske)에 따르면,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고 할 때, 그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은 어떤 것에 의해서 신빙성 있게 야기된 심적 상태이며, 진화나 학습을 통해 그것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⁸⁾ 프린츠는 감정적 상태를 신빙성 있게 야기하는 것이 인지적 판단이 아니라 신체변화라고 생각한다.⁹⁾ 제임스의 견해처럼 프린츠는 감정이 신체에서 나타난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신체변화야말로 감정을 신빙성 있게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신체변화를 통해 감정이 안정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인간뿐만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들도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공포를 느끼고 보상을 받았을 때는 매우 기뻐한다. 분노, 공포, 기쁨 등과 같은 기초 감정(basic emotion)은 영장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영장류들은 자신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표상함으로써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유인원들처럼 개념을 이용한 인지적인 판단능력이 갖추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진화론적으

8) Dretske (1986), 참조.

9) Prinz (2004b), p. 55.

로 이런 기초감정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진화의 오랜 역사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언어능력 이전에 이미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 감정이 신빙성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지적 판단보다는 신체변화가 보다 더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결국 인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은 신체변화를 지각하는 동시에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함으로써 감정이 발생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에 평가는 신체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프린츠의 감정이론이 탄생하는데 밀접하게 관련된 두 견해를 살펴보았다. 하나는 제임스의 견해로서 감정을 신체변화의 지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라자루스의 견해로서 감정을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관계에 관한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하는 것으로서의 평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프린츠는 두 견해를 서로 융합함으로써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감정은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하는 체현된 평가이다.

3. 지향성 문제와 실재적 내용/명목적 내용 구분

감정을 체현된 평가로 정의한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에 대해서 제임스와 라자루스는 원래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제임스는 감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신체변화라고 보았던 반면, 라자루스는 인지적 평가 판단에 의해서 감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런데 프린츠는 감정을 평가로서 규정하는 라자루스의 견해를 수용하는 동시에 감정이 신체변화의 지각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유발하는 과정은 제임스의 견해가 맞고 라자루스의 견해는 틀렸다고 프린츠는 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츠에게 감정을 평가로서 규정해야만 하는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은 바로 감정의 지향성 문제(intentional problem)와 관련 깊다.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감정이 발생한다는 비인지주의의 이론이 해결해

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문제이었다. 그렇다면 지향성 문제는 무엇인가? 제임스의 감정이론에 따르면, 신체변화로 인해 감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정으로부터 표상되는 대상은 신체변화이다. 공포는 심장박동의 두근거림을 표상하고 슬픔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표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정이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표상한다고 하면, 과연 그 감정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생긴다.¹⁰⁾ 예를 들면, 심장박동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은 오직 공포라는 감정하고만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어떤 노총각이 자신의 이상형을 맞선자리에서 만났다고 가정하자. 이 때 격정적으로 빨라진 그 노총각의 심장박동은 상대 여성이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명백히 그 노총각의 심장박동의 변화는 공포와 전혀 무관하다. 이처럼 특정 신체변화는 다양한 감정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듯하다. 심장이 급격하게 빨라진다고 무조건 공포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또한, 하이에나를 평원에서 만나면 무조건 도망기는 행동은 공포와 밀접하다. 그 때 역시 심장박동은 빨라진다. 그러나 맞선자리에 나선 그 노총각의 심장박동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 노총각이 무조건 상대 여성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변화를 감정의 표상대상으로 간주했을 때, 감정에 따른 행위의 합리성과 의사결정의 타당성은 확보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린츠는 감정이 신체변화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관련주체인 형식적 대상을 표상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지주의자들이 이 지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평가 개념의 중요성을 프린츠는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신체변화를 지각하는 것으로서의 감정과 핵심관련주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10) 여기서 언급한 상황은 지향성 문제 말고도 감정의 개별화 문제와도 직결된다.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자들은 감정의 많은 종류만큼 과연 신체변화도 개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신체변화를 지각해서는 감정을 개별화하기 어려우며, 감정을 명제적 판단이나 믿음으로 보아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정의 개별화 문제는 지향성 문제와 더불어 감정에 대한 비인지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간주되어왔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논지의 흐름 전개상 지향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하였다.

서의 감정이 과연 양립가능한가? 이 물음은 프린츠가 지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그의 이론이 과연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를 제대로 화해시켰는지 검토하는 핵심적인 과정인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프린츠는 내용(content)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는 특정 개념(concept)이 지시하는 대상을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으로 구분한 다음,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에 있어서 실재적 내용은 핵심관련주제이며 명목적 내용은 신체변화의 양식(pattern)이라고 규정했다.¹¹⁾ 그렇다면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 구분은 감정에 있어서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개념에 대한 두 내용의 구분을 살펴보자. 프린츠에 따르면, 개념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과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을 동시에 갖는다.¹²⁾ 여기서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은 그 개념의 본질적인 미시적 속성을 가리킨다. 우리의 관념과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며 이미 세계 속의 물리적 대상들끼리의 인과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실재적 본질(real essence)이 바로 특정 개념의 실재적 내용이다. 반면에 명목적 내용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이다. 마음에 의해 결정된 내용은 관념(idea)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서 우리가 관찰한 거시적 속성들을 가리킨다. 보통 일반인의 시력으로 실재적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속성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금’(GOLD)라는 개념은 밝고(bright), 노란색이며(yellow), 쉽게 휘어지는(malleable) 거시적 속성을 지닌다. 이 세 가지 속성들은 ‘금’ 개념의 명목적 내용들이다. 반면에 금의 원자 구조나 원소기호(Au)는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다. 측정 장비와 과학지식에 의존해야만 비로소 금의 원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금’ 개념의 실재적 내용이다.

프린츠는 개념에 관한 이 두 내용 구분을 감정에도 비슷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공포라는 감정은 위협이라는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데, 이 위협이 바로 공포의 실재적 내용이다. ‘금’이라는 개념이 금의 원소기호 ‘Au’를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라는 감정은 위협이라는 핵심관련주제

11) Prinz (2004b), pp. 67~69.

12) Prinz (2000), p. 1.

를 표상한다. 반면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변화의 특정 양식은 공포의 명목적 내용이다. 공포는 신체변화의 생리적 양식을 표상하지 않는 대신에 그것을 ‘등록’(register)함으로써 나타나는 감정이다. 즉, 감정은 신체변화를 등록함으로써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 실제적 내용/명목적 내용의 구분을 따르면 감정은 신체변화를 표상하지 않고도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할 수 있으며, 결국 지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프린츠의 생각이다.

4. 실제적 내용/명목적 내용 구분은 과연 타당한가

그렇다면 과연 프린츠의 주장대로, 특정 개념에 대한 내용의 두 구분이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가능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념의 실제적 내용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되며 명목적 내용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무엇이 내용을 결정하는지에 관한 이와 같은 기준은 감정의 내용 구분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 듯하다. 예컨대, 공포의 실제적 내용인 위험은 유기체와 세계의 상호작용과 긴밀한 핵심관련주제이다. 독사를 보았을 때나 정체불명의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유기체의 평안과 안전은 위협받게 되고 그 때 공포가 발생한다. 이처럼 공포심은 세계 속의 자극으로부터 결정되었다. 반면에 외부의 위험스러운 상황에 따른 신체변화는 상대적으로 내적으로 결정된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의 생리적 변화 양식은 명목적 내용이다. 따라서 세계와 마음 중에서 무엇이 내용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감정에 대한 실제적 내용/명목적 내용 구분은 꽤 그럴 듯해 보인다.

실제적 내용/명목적 내용 구분이 감정에도 적용 가능한 이유는 또 있다. ‘금’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각 용어가 지시하는 실제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즉, ‘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각 용어가 무엇을 실제적 내용으로 갖는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금괴이나 금반지를 관찰하거나 만져보면서 명목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 때 이들 단어들을 사용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관찰한 명목적 내용이 실제

적 내용으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명목적 내용을 통해서 실재적 내용을 미루어 짐작한다. 결국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의 경우, 그 개념들은 실재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질-추적 탐지자’(essence-tracking detector)가 아니며, 명목적 내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외양-추적 탐지자’(appearance-tracking detector)이다. 그런데 프린츠는 감정도 본질추적 탐지자가 아니라 외양추적 탐지자라고 단언한다.¹³⁾ 인지주의자들은 감정을 핵심관련주제들과 관련된 평가적 판단으로 보았으며 그 때 감정은 명제적 태도(propositional attitude)나 믿음(belief)과 같은 형식적 구조를 띤다고 보았다. 그러나 감정을 평가로 규정하더라도 인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감정이 명제적 태도라는 언어적 구조일 필요가 굳이 없다. ‘금’이라는 이 단어가 금의 분자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대신에 여러 명목적 내용들을 추적하는 탐지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여러 감정들도 심적 상태의 하나로서 명제적 태도나 믿음과 같은 언어적 구조 자체가 아니라 신체적 변화를 통해 드러날 뿐이다.¹⁴⁾ 감정은 실재적 내용에 해당하는 핵심관련주제라는 형식적 대상을 표상할 뿐 그것의 개념적 구조나 내적 특정 형식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대신에 감정은 어떤 유기체가 특정한 환경에 처해있을 때 나타나는 특정한 신체변화를 추적한다. 다시 말하면, 그 유기체는 생리적 변화라는 명목적 내용을 탐지함으로써 자신이 표상하는 실재적 내용을 파악한다. 이렇게 감정을 외양-추적 탐지자로 볼 경우, 인지주의자들처럼 감정을 명제적 태도의 형식적 구조를 띤어야 한다는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감정을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3) Prinz (2004b), p. 68.

14) Prinz (2004b), p. 65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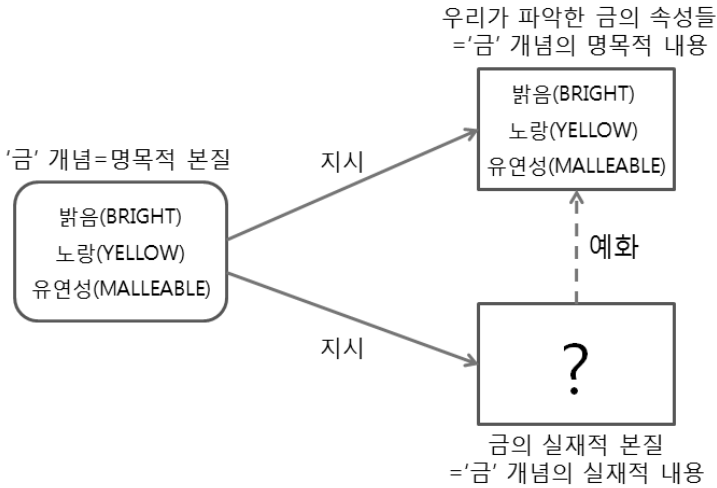


그림 1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 사이의 관계(Prinz 2000, 3)

프린츠는 무엇이 감정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외양추적 탐지자로서 감정을 규정함으로써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 구분이 개념 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프린츠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금’이라는 용어는 각각 명목적 내용과 실재적 내용을 각각 ‘지시’(refer)한다. 개념 분석에 있어서 ‘금’이라는 용어는 각각 두 속성을 동시에 지시한다. 즉, 하나의 개념은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 둘 다와 서로 동일한 지시관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감정 분석에 있어서 공포는 명목적 내용인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등록’하는 동시에 실재적 내용인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 즉, 하나의 감정은 실재적 내용과는 표상관계를 맺고 명목적 내용과는 등록관계를 맺는 것이다. 프린츠는 감정을 평가로 간주하면서 지향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재적 내용/명목적 내용 구분을 도입하였다. 그 때, 감정이 표상하는 대상은 신체변화 양식이 아니라 핵심관련주제이기 때문에 감정의 지향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여기서 신체변화 양식은 감정에 의해서 표상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각

되거나 등록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향성 문제는 감정이 실재적 내용인 핵심 관련주제와 명목적 내용인 신체변화 양식과 서로 이질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었다.

그런데 원래 특정 개념이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과 갖는 관계는 서로 같은 지시관계였다. 하지만 감정은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과 서로 다른 관계를 갖는다. 즉, 실재적 내용/명목적 내용 구분만으로 감정이 왜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지만 신체변화를 등록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어 보인다. 이 구분이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극복하고 체현된 평가로서 감정을 정의하는데 유용한 만큼, 감정이 실재적 내용과 왜 ‘표상’관계를 맺으며 왜 명목적 내용과는 ‘등록’관계를 맺고 있는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밝고 노란 색이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금의 명목적 내용들은 금의 실재적 내용인 ‘Au’라는 원자구조가 예화(exemplify) 된 것들이다. 여기서 예화되었다는 것은 실재적 내용 덕분에 인과적으로 야기된 결과가 바로 명목적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의 원자 구조들은 금의 색깔과 물리적 특징을 결정하는 원인이다. 눈이나 손으로 식별 가능한 금의 명목적 내용들은 금이 어떤 미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예화 된다. ‘금’이라는 개념은 명목적 내용과 실재적 내용을 동시에 지시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은 ‘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명목적 내용을 지시한다. 이 때, 사람들은 ‘금’의 명목적 내용들이 실재적 내용인 금의 미시적 구조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야기되었다는 사실 또한 쉽게 받아들인다.¹⁵⁾ 명목적 내용들이 실재적 내용에 의해서 예화 되었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을 때, ‘금’이라는 개념을 발화하는 순간 두 가지 지시가 동시에 가능하게 된다. 비록 ‘금’

15) 물론 모든 명목적 내용들이 실재적 내용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의 명목적 내용들은 실재적 내용에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관찰자의 관찰 각도 등 주변 환경 조건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린츠가 명목상 내용이 실재적 내용으로부터 ‘인과적’으로 결정된 예화라고 말할 때, 이 때의 인과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해도, 인과에 대한 보다 보완된 해명이 프린츠에게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한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지시하기는 하지만 명목적 내용이 실재적 내용에 의해서 예화된 것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실재적 내용을 ‘표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금’의 명목적 내용들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금의 겉보기 속성들이 지각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등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실재적 내용이 명목적 내용을 예화 시켰다면, 두 내용에 대한 하나의 개념이 각각의 내용들을 동시에 지시가 가능하더라도 그 개념은 실재적 내용을 표상하며 명목적 내용은 등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감정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구도가 가능하다. 공포의 명목적 내용인 빨라진 심장고동과 식은땀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적 속성인 위험이라는 실재적 내용이 신체 내부에 예화 된 결과이다. 산 속에서 홀로 뱀을 만났을 때 공포를 느꼈다면 그 순간 위험이라는 핵심관련주체가 물리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빨라진 심장고동과 식은땀과 같은 신체변화이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위험을 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뱀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조건이 신체 내부에 예화된 어떤 신체변화들을 우리가 지각했다면, 공포라는 감정이 유발되고 결국 그 공포는 핵심관련주체인 위험을 표상한다. 빨라진 심장고동과 식은땀은 지각되었기 때문에 공포의 명목적 내용은 ‘등록’되었으며, 이 신체변화들은 우리의 안녕과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예화된 것이기 때문에 공포는 위험을 ‘표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고려해보면, 감정이 신체변화를 등록하고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한다고 주장한 프린츠의 견해가 완전히 틀린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체현된 평가로서의 프린츠 감정이론이 어떤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탄생하였는지 살펴보고, 어떤 이유에서 서로 이질적인 제임스와 라자루스의 감정이론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또한 나는 감정의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논쟁이 프린츠의 감정이론에 이르러서 통합될 수 있었던 철학적 토대로서 실재적 내용과 명목적 내용 구분에 주목하였다. 그런 다음, 이 두 가지 내용 구분에 대한 예상되는 한 가지 반론들을 검토한 결과, 그의 체현된 평가 감정이론의 토대는 꽤 이론적으로

탄탄하다고 평가하였다.

체현된 평가로서 감정을 논의한 프린츠의 주장은 기존의 입장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종합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우며 그의 감정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는 그의 저서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에서 자신의 감정이론을 언급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감정을 정의하였다. 그것은 바로 유인가 표지이다. 그리고 프린츠는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를 결합함으로써 감정을 ‘값어치가 매겨진 체현된 평가’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우리가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인가 표지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유인가 표지가 체현된 평가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도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프린츠의 감정이론에 대해서 논의했던 일부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감정 요소들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유인가 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평가’ 개념을 더욱 정교화시킬 것이다.

Ⅲ. 프린츠의 감정이론Ⅱ: 유인가 표지

1. 유인가 표지로서의 감정

유인가 표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린츠가 감정에 대한 어떤 논의에서 이 개념을 주로 언급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최고의 요식업체인 AT그룹의 사원인 나는 평소에 아주 친하면서 능력도 출중한 내 친구와 함께 그 회사의 CEO 1명을 뽑는 최종 면접시험에서 단 둘이 경쟁하였다. 면접 후에 결국 그 친구가 CEO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매우 실망스럽고 슬픈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소 다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격려하는데 익숙했던 나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그 친구에 대해 축하하는 마음도 조금이 남아 생겼다. 그래서 CEO로서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안도감이 생겼고, 그래서 조금은 행복한 감정이 들었다. 비록 감정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슬픈 감정이 행복한 감정보다 더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 모순적인 두 감정이 공존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처럼 서로 모순적인 감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보통 양가감정(ambivalent emotion)이라고 부른다.

인지주의자들처럼 감정을 명제적 태도나 믿음으로 규정했을 때, 서로 모순적인 감정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은 곧 모순적인 믿음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주의 내에서 서로 모순적인 믿음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용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지주의자들은 감정을 명제적 태도나 믿음으로 환원하는데, 양가감정은 서로 모순적인 믿음들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며,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믿음은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지주의가 극복해야 할 문제거리였다. 한편, 인지주의의 평가요소를 과감하게 수용한 프린츠에게도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숙제이다. 왜냐하면 프린츠의 목표는 단지 제임스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와 비인지의 벽을 넘어서는 일반이론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만일 인지주의에게 문제가 되었던 양가감정이 왜 발생하는지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된다면, 그의 이론은 강력한 지지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프린츠는 유인가 표지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¹⁶⁾ 감정에 관한 유인가는 긍정적인(positive) 것과 부정적인(negative) 것이 있다. 두려움, 슬픔, 피곤함 같은 감정은 대표적인 부정적인 유인가를 갖는다. 반면에 놀람, 행복함, 고요함 같은 감정은 긍정적인 유인가를 포함한다. 그러면 양가감정은 왜 발생하는가? 슬픔을 예로 들어보자. 슬픔은 상실이라는 핵심관련주제를 탐지하는 체현된 평가이면서 동시에 상실을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표상하도록 하는 활성화(activation)가 뒤섞인 복합 상태이다.¹⁷⁾ 또한, 향수(nostalgia)의 경우나 눈물이 나면서 기쁜 경우들도 서로 다른 유인가들이 혼합된 상태에 해당한다.

16) Prinz (2004b), pp. 164~167.

17) Prinz (2004b), p. 163.

그렇다면 유인가 표지란 무엇을 뜻하는가? 프린츠는 유인가를 내적 강화인자(inner reinforcer)와 동일시한다. 강화인자는 보상(reward)과 처벌(punishment) 요인에 따라 두 가지 형식을 갖는다. 하나는 긍정적인 강화인자인데, 이것은 보상과 관련되거나 처벌이 없는 형식과 관련 깊다. 반대로 부정적인 강화인자는 처벌과 관련되거나 보상이 없는 형식과 관련 깊다.¹⁸⁾ 이 절의 시작에서 살펴본 앞의 사례의 경우, 내가 느낀 두 가지 감정들이 서로 모순적인 이유는 보상으로서의 유인가 표지와 처벌로서의 유인가 표지가 서로 비슷한 시점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상/처벌 요인에 따라 유인가 표지를 구분하는 것은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긍정적인 감정은 행동을 강화시키는 보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행동을 축소시키는 처벌의 역할을 담당한다.¹⁹⁾ 예컨대,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 행복한 감정을 느낀 아빠는 아내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이유식을 먹이는 행동을 앞으로 좀 더 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를 비울 때 역겨움을 느낀 남편은 나중에 다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행복감은 대표적인 긍정적 감정으로서 이 감정을 느끼면 우리는 그 감정과 연결된 행동을 좀 더(more of this)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행동이 즐거움(amusement), 자부심(pride), 성적 쾌락(sexual pleasure), 만족(contentment)을 유발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좀 더 반복하기 쉽다. 반대로 어떤 행동이 역겨움(disgust), 공포, 짜증(irritation)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그 행동을 좀 덜(less of this)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행동을 좀 더 혹은 좀 덜 하려는 신호는 그 행동에 대한 일종의 내적 상태이다. 그런데 얼핏 보면, 특정 행동이 좋고 나쁘다는 강화인자는 언어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프린츠는 보상/처벌 표지로서의

18) 또한 강화인자는 선천적/후천적 요인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 일차(primary) 강화인자는 선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이차(secondary) 강화인자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강화인자가 선천적인지 혹은 후천적인지 구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보통 내적 강화인자는 보상/처벌 요인에 따라 구별된다.

19) Prinz (2004b), pp. 173 ~ 174; (2010), pp. 9 ~ 10.

강화인자가 내적 상태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쾌락/고통과 같은 느낌이나 명제적인 구조를 띠는 평가적 판단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⁰⁾ 유인가 표지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unconscious mechanism)이다. 어떤 행동이 그 행위자에게 기쁨이나 만족의 감정을 유발시켰다면 그 행동은 좀 더 선호할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강화인자는 그 감정들의 상태를 좀 더 지속하려고 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그 감정들과 관련된 행동을 좀 더 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그 행동이 슬픔이나 공포를 유발시켰다면, 우리는 이 감정들의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며, 결국 그 행위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유인가 표지는 특정 감정의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긍정적인 유인가 표지) 아니면 변화시킬 것인지(부정적인 유인가 표지)를 결정한다.

어떤 감정이 좋다고 여겨지면 그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보상과도 같다. 반대로 어떤 감정이 나쁘다고 여겨지면 그 감정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처럼 보일 것이다. 이처럼 유인가 표지는 곧 보상/처벌 표지인 셈이다. 어떤 행동을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은 그 행동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행동과 감정의 상호작용에 따라 선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평가과정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감정을 보상과 처벌 중의 하나로 결정은 그 감정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짐작은 감정을 평가로 간주했던 프린츠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누군가의 흥미나 관심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무언가를 표상하는 것이 곧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²¹⁾ 행위자의 흥미나 관심을 반영하여 심적 상태의 하나인 감정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매기는 것도 평가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프린츠의 유인가 표지는 가치반응 의존적인 평가(value-response dependent appraisal)이라고 볼 수 있다.

20) Prinz (2010), p. 10.

21) Prinz (2004b), p. 52.

2. 유인가 표지는 체현된 평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현된 평가와 마찬가지로 유인가 표지도 행위자의 흥미와 관심에 관련 맺는 어떤 것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역시 평가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가치반응 의존적인 평가로서의 유인가 표지는 체현된 평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만일 감정의 두 평가 체계를 동시에 인정한다면, 어느 한 체계가 다른 체계에 우선하는가? 아니면 두 평가 체계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가? 또 두 체계는 감정의 두 구성요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정이 나타나는데 상호작용하는가?²²⁾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두 감정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둘 사이의 관계를 혼동한 몇몇 사례가 눈에 띈기 때문이다. 뒤링거(E. Düringer)는 프린츠의 감정이론에 논의하면서 프린츠가 『*Gut Reactions*』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체의 패턴을 등록함으로써 무언가를 좋거나 혹은 나쁘다(good or bad)고 표상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단 세 쪽을 할애하였다’고 불평한 바 있다.²³⁾ 이 언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링거는 신체변화를 등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좋거나 혹은 나쁘다는 체현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말한 듯하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무언가를 좋거나 나쁘다고 표상하는 것은 체현된 평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표상하는 핵심관련주제들은 좋다 혹은 나쁘다와 같은 선호의 가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체현된 평가는 신체변화와 핵심관련주제가 서로 명목적 내용과 실제적 내용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가능한데, 좋고 나쁘다는 가치에 대한 명목적 내용에 대해서 프린츠가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 또,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감정을 좀 더 유지할지 아

22) 프린츠의 감정이론에 대해서 논의한 국내의 논문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양선이(2007); 신인자(2008)) 해외에서도 프린츠의 감정이론들은 거의 체현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을 뿐, 유인가 표지와 체현된 평가를 동시에 논의하는 논문을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유인가 표지가 체현된 평가보다 중요하지 않거나 무시될 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 프린츠는 명시적으로 유인가 표지가 체현된 평가와 함께 동등한 감정의 구성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Prinz 2004b, 244) 따라서 유인가 표지가 체현된 평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23) Düringer (2009), p. 63.

니면 그 반대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체현된 평가와 무관한 별도의 문제이다. 프린츠는 체현된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표상’을 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표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²⁴⁾ 무언가가 좋고 나쁘다는 가치는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평가보다 그것이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가치평가와 좀 더 관련 깊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표상하는 핵심관련주제가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체현된 평가가 아닌 유인가 표지와 관련 깊다. 결과적으로, 되링거는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곧 체현된 평가라고 오해한 듯하다.

프린츠가 체현된 평가를 강조했던 이유는 앞서 살펴본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감정의 지향적 대상은 신체변화가 아니라 핵심관련주제이며, 신체변화는 감정의 명목적 내용에 해당된다. 여기서 평가는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변화 그 자체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공포가 표상하는 위협이라는 핵심관련주제는 유기체의 상태(*state of an organism*)도 아니고 신체적 조건(*bodily condition*)도 아니다. 프린츠에 따르면, 모든 핵심관련주제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적 속성이다. 따라서 공포라는 감정이 표상하는 위협이라는 핵심관련주제는 우리에게 이미 위협한 무엇이라고 규정된 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반응에 독립적이다. 이렇게 위협을 규정해야만 표상의 순환성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프린츠는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평가 외에도 유인가 표지도 평가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할 때의 평가는 우리의 가치반응에 독립적인 반면, 유인가 표지는 철저하게 가치반응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이다. 감정이 곧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프린츠 입장에서 표상의 순환성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관심도가 표상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했다. 그러나 프린츠 자신이 정의한 평가의 의미에서도 드러나듯이, 감정의 평가에서 개인의 목적과 관심이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 유인가 표지는 개인의 목적과 흥미에 따라 감정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결국 유인가 표지 역시 감정의 체현된 평가

24) Prinz (2004b), p. 178.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유인가 표지가 감정의 체현된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면, 표상관계는 다시 순환성의 고리에 빠지고 만다. 이 때 프린츠의 감정이론은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표상의 순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핵심관련주체가 유기체의 목적과 관심사로부터 독립적인 속성이어야 하지만, 감정의 평가 자체가 그 유기체의 유인가 표지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해명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프린츠가 ‘평가’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임스의 신체이론을 지지하는 프린츠 입장에서 표상의 순환성을 피하기 위해서 인지주의적인 평가 개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가치에 관한 평가도 신체이론에서 중요한 평가적 요소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자루스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제시한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는 가치 평가의 하나인 유인가 표지와 어떻게 양립가능한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신경 계통에서 체현된 평가가 일어나고 어느 과정에서 감정을 긍정 혹은 부정으로 규정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감정에 관한 실제 신경체계의 구조와 기능들을 고려해보면, 이 기능을 담당하는 두뇌 내부의 부위가 신체변화를 지각하는 과정과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만일 신체변화를 지각하는 과정이 무엇으로부터 무엇까지인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이 물음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아쉽게도 프린츠는 그의 책에서 특정 감정의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실제 두뇌 속에서 연결되는지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인가 표지와 체현된 평가 사이의 관계는 그의 저서에서 해명되지 못한 채, 여전히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이론이 딜레마의 빠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감정을 구성하는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가 서로 상충하는 평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프린츠가 해명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최근 논문에서 프린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한 가지 실마

리를 제공한 바 있다.²⁵⁾ 앞서 논의한 유인가 표지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감정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를 행위자의 가치반응에 의존한 평가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과 처벌로서 평가될 대상은 행동과 관련된 감정 그 자체라는 점이다. 즐거움(joy)라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선호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은 긍정적인 감정이다. 반면에 누구나 역겨움과 관련된 행동을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역겨움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 때 행위자에 의해서 보상으로 평가되는 대상은 즐거움이다. 반대로 처벌로 평가되는 대상은 역겨움이다. 다시 말하면, 유인가 표지는 특정 감정 상태가 좋거나 혹은 나쁘다는 평가이다. 즐거움이나 역겨움의 감정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는 체현된 평가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유인가 표지는 어떻게 감정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문제와는 무관하다. 일단 특정 감정 상태에 행위자가 처하게 되면, 그 감정이 선호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유인가 표지는 이미 체현된 평가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프린츠는 유인가 표지를 메타 평가(meta-appraisal)이라고 말한다.²⁶⁾

메타 평가로서의 유인가 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의 평가 개념이 감정의 서로 다른 두 구성요소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체현된 평가는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평가이다. 이 때 감정은 신체의 생리적 변화인 명목적 내용을 지각함으로써 형성된다. 일단 감정이 형성되고 나면 그 감정 상태를 강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평가한다. 이 때 긍정적인 강화인자는 감정을 보상으로 평가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강화인자는 처벌로 평가한다. 즉, 감정이 유발되고 나서 그 감정의 좋고 나쁜 정도가 평가된다. 따라서 체현된 평가는 유인가 표지보다 인과적으로 앞선다.

정리하면, 프린츠의 감정이론은 체현된 평가와 보상/처벌 표지로서의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중 평가 체계(dual-appraisal-system)이다. 이 두 평가체계는 감정을 일으키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²⁷⁾ 한 가지 비

25) Prinz (2010), 참조.

26) Prinz (2010), p. 11.

유를 들어보자.²⁸⁾ 알코올 음료인 술은 모두 사람을 취하게 하는 속성이 있다.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는 술은 탄산음료나 과즙 음료에 불과하다. 그런데 술은 그 제조 과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풍미를 갖는다. 증류된 알코올 입자를 채취한 소주는 깔끔하지만 공업용 알코올의 맛을 풍긴다. 막걸리는 구수한 곡물의 맛과 함께 고약한 냄새를 동반한 트림을 일으킨다. 위스키는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을 일으키지만 입안을 개운하게 해준다. 이 때,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의 공통적인 속성은 감정에 있어서 유인가 표시와 같다. 어떤 감정 상태든 상관없이 모든 감정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보상과 처벌 둘 중에 하나로 평가되지 않는 감정은 없다. 반면에, 제조과정에 따른 다양한 술의 종류는 감정에 있어서 기초감정(basic emotion)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초감정은 소주, 위스키, 맥주, 막걸리처럼 처음에 공장에서 제조되어 판매되는 것들을 말한다. 술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술이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술과 미묘하게 다른 풍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맥주 하나를 보더라도 어느 회사에서 제조되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풍미를 지닌다. 이는 슬픔이라는 하나의 감정일지라도 사람마다 슬픔의 정도와 깊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우리는 술을 종종 섞어서 마신다. 법조인들이 맥주와 위스키를 섞은 폭탄주를 즐겨 마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각자의 입맛에 따라서 막걸리와 소주를 섞거나 신입생 환영회를 할 때 선배들은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후배에게 주기도 한다. 처음에 제조된 술이 서로 섞어서 새로운 맛을 풍기는 술로 다시 태어나듯이 기초감정 역시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곤 한다. 한평생 자신의 옆을 지켜준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아내는 한편으로 이십 년

27) 나는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선형적인 이중 평가 체계로 볼 것을 제안한 이유를 앞에서 두 가지 언급한 바 있다. 첫째, 제임스식 감정의 신체이론을 받아들인 프린츠는 표상의 대상이 신체변화의 양식이 아니라는 점을 보임으로써 표상의 순환성을 피해야만 했다. 둘째, 이 때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평가’의 의미가 신체반응, 개인의 흥미 및 선호에 밀접한 가치반응 의존적인 ‘평가’의 의미와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들은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해명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프린츠는 지금까지 전혀 깊이 있기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나의 해석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익명의 한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28) Prinz (2004b), p. 97.

전에 그가 의도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증오심이 아직도 끓어오른다. 중첩되는 두 감정은 복합적인 감정으로 재탄생되며, 그 감정들이 나타날 때마다 보상 혹은 처벌로서의 평가는 언제나 동반된다. 체현된 평가는 감정의 기초적인 종류를 구분하고 더 복잡한 감정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감정분류를 위한 평가(appraisal for classifying basic emotions)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유인가 표지는 이미 발생한 감정을 차후에 좋거나 나쁘다고 구분한다는 점에서 가치 반응적인 메타 평가(value-dependent meta-appraisal)인 셈이다.

IV. 평가로서의 감정과 동기화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은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에 의해서 구성된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된 바 있는 되링거는 감정이 가치관계 평가(appraisals of value relations)와 신체변화의 동기화 된 양식(motivating patterns of bodily changes)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신체변화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 한다고 주장했다.²⁹⁾ 그녀는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가 감정에서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한다. 그러나 프린츠 감정이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동기화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되링거는 비판한다.³⁰⁾ 감정의 어떤 구성요소가 행동을 위해 동기화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감정을 이해할 때 체현된 평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며, 프린츠는 바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되링거는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프린츠는 소위 ‘동기화 문제’(motivation problem)에 빠졌다는 것이다.³¹⁾

29) Düringer (2009), 참조.

30) Düringer (2009), p. 75.

31) 우리는 특정 감정을 느낀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감정, 동기, 그리고 동기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 동기화, 그리고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프린츠의 이론을 비판한 되링거의 문제제기는 꽤 눈여겨 볼만 한 가치가 있다. 다만, 프린츠의 이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유인가 표지에 대한 논의 자체도 거의 찾아

그렇다면 과연 프린츠는 감정을 값어치가 매겨진 체현된 평가로 정의하면서 감정과 행위와의 관련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는가? 우선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분노의 감정을 고려해보자. 어떤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고 나서 낮빛이 붉어지며, 결국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상태에 있게 된다. 이런 (신체적) 변화들은 공격적인 반응을 촉진하지만 그렇다고 보복하려는 성향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신체적 변화들은 행동을 가능케 하는(enabling) 것들로 간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을 구성하는] 신체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준비시키며, 유인가 표지는 우리에게 그 행동을 하려는 경향(disposition)을 갖도록 한다. 분노의 경우 우리의 신체 변화는 공격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유인가 표지는 우리가 그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긍정적인 유인가) 혹은 변화시켜야 하는지(부정적인 유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동은 선택되지 않았고 어떤 전략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어떤 계획도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았다. [...] 분노의 상태는 난폭한 보복을 일으키는 확률을 증가시키지만, 그렇다고 분노가 보복이라는 행동에 의해서 구성되지는 않는다. 보복하려는 결정은 감정으로 부터 따라 나오는 선택이다.³²⁾

위 인용문을 보면,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 체현된 평가는 행동을 가능케 하는 준비단계이다. 그리고 이 체현된 평가에 대한 유인가 표지가 그 감정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변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갖추게 된다. 이중 평가 체계를 통해 형성된 특정 감정은 내적인 상태이며 행동 그 자체와는 엄밀하게 구분된다.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된 것이 아니고 계획된 것도 전혀 없다. 인용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노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한 예비단계이며, 어떤 방식으로 양값음을 할지에 대한 세부 전략이나 계획은 아직 갖춰진 것이 없다.

이와 같은 프린츠의 생각은 동기(motive)와 동기화(motivation) 사이의

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되링거의 문제제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나는 밝힌다. 이 점에 대해서 논평해주신 익명의 한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32) Prinz (2004b), p. 194.

엄격한 구분과 관련이 깊다. 동기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 반면, 동기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념적으로 동기화 된 행동 명령(affectively motivated action command)이다.³³⁾ 낮빛이 붉어지고 근육이 경직되는 신체변화를 등록함으로써 모욕감이 표상되었을 때 체현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로 인해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서 분노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특정 반응이 나타날 준비 상태가 갖춰지게 된다. 이렇게 값어치가 매겨진 체현된 평가는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한 이유이기 때문에 동기에 해당한다. 이 상태에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과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동기화와 구별된다. 동기화는 행동의 통제 전략이 수립된 다음에 나타난다. 특히 감정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유인가 표지는 체현된 평가의 결과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그 내적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반면에 동기화는 우리의 행동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여한다. 다시 말하면, 유인가 표지는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how we are feeling)와 같은 내적 상태의 변화와 관련 깊지만, 동기화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how we are acting)와 같은 특정 행동의 변화시키도록 말한다.³⁴⁾ 체현된 평가와 부정적인 유인가가 더해져서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나면, 위 인용문의 마지막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 이후에 양값음을 해야겠다는 의사결정이 뒤따른다(follow). 이런 점에서 동기화는 동기와 구별되며 결국 동기화는 감정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값어치가 매겨진 체현된 평가로서의 감정과 구체화 된 행동 명령으로서의 동기화가 구별가능하다고 해서 이 둘 사이가 전혀 무관한 별개의 것도 아니다. 프린츠는 감정과 동기화가 함께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서로 찢어 놓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고 말한다.³⁵⁾ 그리고 그는 감정과 동기화를 인과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다. 즉, 프린츠는 감정이 동기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³⁶⁾ 만일 누군가에게서 자

33) Prinz (2004b), p. 195.

34) Prinz (2004b), pp. 194~195.

35) Prinz (2004b), p. 195.

36) *ibid.*

기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맥박이 심하게 요동치는 신체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동시에 모욕(insult)을 표상하고 여기에 부정적인 값어치가 더해져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갖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인가 표지는 신체변화를 지각한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추가적인 평가 장치로서 작동을 한다. 즉, 유인가 표지는 우리가 이미 지각한 신체변화에 대한 표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 상 과실 때문에 심하게 질책을 받은 한 회사원은 당연히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져서 모욕을 표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회사원이 승진 심사를 세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원의 과실을 지적한 바로 그 직장 상사가 심사관으로 확정된 상태라면, 무조건 그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건 그 회사원에게 도움이 안된다. 왜냐하면, 왜 과실을 범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온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실수를 만회함으로써 심사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전환시킬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그 회사원이 모욕에 따른 부정적인 분노를 계속 유지하여 그 직장 상사를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모욕을 당한 점을 자신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여긴 다음, 여태껏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각성의 계기로 취급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이 경우, 모욕을 당했다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긍정적으로 취급할 여지도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신체변화에 대한 지각만으로 감정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관한 문제도 온전히 결정되지 않는다. 체현된 평가와 더불어 유인가 표지의 추가적인 평가가 덧붙여져서 감정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회사원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직장 상사를 미워할지, 아니면 승진 전에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해하고 의욕을 불태울지를 결정하는 충분한 이유가 생긴다. 이처럼 최종적으로 유인가 표지에 의해서 평가가 완료된 감정은 특정한 행동들을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사결정하기 위한 이유를 제공하며 결국 동기화를 일으킨다.

되려가 제시한 동기화 문제는 감정과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인 듯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녀는 프린츠의 감정 이론을 두 가지 정도로 비판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하나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으로부터 행동을 준비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신체변화 양식이 특정 행동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동기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되링거의 두 가지 비판은 모두 타당하지 못하다. 우선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히 프린츠는 왜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의 이중 평가 체계를 거쳐 형성된 감정을 행동의 동기로 간주했다. 이 때 값어치가 매겨진 체현된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즉, 감정은 행동의 이유이며 행동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예비단계이다. 되링거는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지만, 프린츠는 동기와 동기화의 구별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동기화 문제를 제시하면서 되링거가 제시한 대안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녀는 무엇으로부터 행동이 야기되었는지를 프린츠가 간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체변화 양식이 행동을 준비시키고 동기화 한다고 주장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되링거는 체현된 평가가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의 신체변화 양식을 초래했으며, 결국 신체변화 양식으로부터 행동이 나타난다고 말했다.³⁷⁾ 그러나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동기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 둘 다이다. 공격적인 행동의 동기화는 부정적으로 가치가 매겨진 분노에 의해서 야기되며, 잘못을 질책했던 직장 상사를 미워하거나 그 질책을 철저한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 모두 신체 변화의 지각에 따른 부정적인 유인가에 의해서 초래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체변화 양식은 구체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체현된 평가를 가능케 하는 전단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린츠의 감정이론에 따르면 신체변화 양식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지각되었을 때 체현된 평가가 나타나며, 이 체현된 평가에 대한

37) Düringer (2009), p. 80.

긍정적 혹은 부정적 메타 평가로서의 유인가 표지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감정의 동기가 갖추어진다. 되링거가 감정의 구성요소로 체현된 평가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련의 전 과정 혹은 최소한 유인가 표지가 작용하기 전 단계인 신체변화 양식과 체현된 평가 사이의 관계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체현된 평가가 신체변화 양식을 초래한다는 되링거의 주장은 프린츠의 원래 주장과 정확하게 상반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체현된 평가를 되링거가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을 초래하기 충분해 보인다.

정리하면,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행동의 동기화는 감정으로부터 초래된다. 즉 감정은 동기화의 이유이며 동기이다. 그리고 감정은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의 이중 평가 체계에 의해서 구성되며, 체현된 평가는 신체변화의 양식이 나타나고 그것을 지각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되링거는 행동을 준비시키고 동기화하는 것이 신체변화 양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신체변화 양식은 체현된 평가로부터 야기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체변화 양식이 등록됨으로써 체현된 평가가 가능하다. 되링거가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를 자신의 감정이론의 한 축으로 받아들였다면, 신체변화와 체현된 평가 사이의 이와 같은 관계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신체변화 양식이 행동을 동기화시킨다고 주장한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 결국, 신체변화 양식은 행동을 동기화하는 직접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행동의 동기화를 초래하는 감정의 간접적인 토대일 뿐이다.

V. 결론

나는 지금까지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중심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체현된 평가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의 이론적 토대는 과연 타당한가, 둘째, 유인가 표지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은 체현된 평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셋째,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는 어떻게 행동이 유발되는가. 이 세 가지 물음들은 각각 어떻게 감정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으로부터 행동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과도 맞닿아 있다. 나는 이 세 물음들을 중심으로 이미 제기되었거나 앞으로 제기될 만한 반론에 대해서 프린츠의 입장에서 대응함으로써 그의 감정이론을 옹호하고자 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프린츠의 감정이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린츠의 감정이론이 꽤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강력한 감정이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와 얼마나 잘 결부되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가 어떤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절차인지 밝히는 것은 그의 감정이론이 경험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신경과학과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다른 글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투 고 일: 2013. 07. 14.
심사완료일: 2013. 08. 02.
게재확정일: 2013. 08. 05.

김진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과학철학 전공 박사과정

참고문헌

- 신인자 (2008). 「신체적 느낌과 인지는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하는가?: 프린츠(J. Prinz)의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27호, pp. 270~294.
- 양선이 (2007).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연구』, 제79집, pp. 107~128.
- Duringer, E. (2009). “Do Emotions Represent Values by Registering Bodily Changes?”, *Organon F*, Vol. 16, No. 1, pp. 62~81.
- Dretske, F. (1986). “Misrepresentation”, In R. Bogdan (ed.), *Belief: Form, Content and Function*, pp.17~3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Dover.
- Lazarus, R.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 (2000). “The Duality of Content”, *Philosophical Studies*, 100, pp. 1~34.
- Prinz, J. (2002). *Furnishing the Mind: Concepts and Their Perceptual Basis*, Cambridge: MIT Press.
- Prinz, J. (2004a). “Embodied Emotions”, In. R.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 (2004b).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 (2010). “For Valence”, *Emotion Review*, Vol. 2, No. 1, pp. 5~13.

ABSTRACT

Prinz's Theory of Emotion as a Dual-Appraisal-System:

The Relation between Embodied Appraisal and Valence Markers

Kim, Jin-Yeong

For the last century,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the nature of emotion between those supporting the somatic theory and those advocating the appraisal theory. Recently, Prinz reconciles the two stances and suggests a general theory of emotions. My aim in this paper is to review and defend his theory of emotion against some criticisms. To achieve this, I will examine Prinz's theory by focusing on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ly, how embodied appraisal enables the integration of somatic theory and appraisal theory; secondly, how valence markers are related with embodied appraisal; and thirdly, how emotions cause actions in Prinz's theory of emotions. By investigating these questions, I articulate theoretical foundations of his theory of emotions as well as link embodied appraisal with valence markers, which were often neglected by other writers. In addition, I will defend Prinz's theory against the motivation problem, which was raised by Düringer. Finally, I suggest an interpretation that Prinz's theory of emotion is a *dual-appraisal-system*.

Keywords: emotion, Prinz, embodied appraisal, valence markers, motivation

